

## 대학 기초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D대학의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손미란\*\*

### 〈차 례〉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2. 대학 기초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3. 대학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비교과 운영 사례
4. 결론

### 【국문초록】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대학 기초교양교육에서도 빠질 수 없는 교육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 현장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활용 교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이 논문은 2021년 12월 4일 한국리터러시 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학 교양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전임연구원

물론 미디어학과 및 언론정보학과 같은 미디어 매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 범주를 세우고 목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렇다면 미디어학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기초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가이다. 핵심은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이 가지는 역할과 그 의미에 있다.

2008년부터 진행된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아래 현행 대학들의 교육역량강화의 방향이 각 대학의 건학이념 및 교육이념을 반영한 특성화된 교양교육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게 했고 그 결과 전공 교양 영역할 것 없이 융합 교육을 지향하게 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기초 토대 없이 실행되다보니 그 실효성이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융합교육을 위해 활용 방안으로만 소환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더 이상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며, 현대 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은 기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기초교양교육 영역이어야 한다. 대학 기초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개발은 새로운 융합 교육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대학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주제어:** 대학교양교육, 대학기초교육, 미디어리터러시, 비교과 교육과정, 핵심역량, 핵심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기반한 뉴미디어(New Media)의 등장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미디어 콘텐츠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했다. 2013년 UNESCO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학습 능력의 향상 외에도 정보의 신뢰성, 프라이버시, 안전과 윤리에 대한 문제 등에도 큰 영향을 준다.(UNESCO, 2013)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제 필수역량이 된 것이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된 것을 기점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급속하게 확장되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대학 기초교양교육에서도 빠질 수 없는 교육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 현장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활용 교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연구 또한 개념 정립 및 역량의 범주를 논의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거나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물들이 근래 들어 다수 나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의 대다수는 초중고등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기초 학술 토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나마도 현재 발표된 관련 연구물들 대부분은 활용 교육에 해당하고 기초 학문 영역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학술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자가 현재까지 발견하기로 대학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태에 주목하거나 기초학문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주목한 연구물은 단 11편 정도에 불과했다.<sup>1)</sup>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기초 토대가(이론적 토대) 부족한 것에서 연유된 것이기도 하다. 이때 눈여겨 볼 연구물에 안정임(2017)의 논문이 있다.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은 최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동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에 의하면, 미디어학의 경우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적·당위적 논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적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교육학 분야에서는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과 사회문화적 의미 등을 배제한 미디어 교육의 실행만을 중시 여기고 있어 도구적 협소함을 지닌다는 한계를 가진다.(안정임 외2인, 2017:5-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교육(teaching about media)이지 미디어를 ‘통한’ 교육(teaching through media)과는 구

- 
- 1) 김경희 외 3, 「대학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23권 2호, 한국방송학회, 2022./김기태, 「한국 미디어교육연구 실태 및 경향 분석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9,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 2010./김도현, 「국내 미디어·디지털·정보·ICT 리터러시의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6권 3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나소정, 「대학사회와 리터러시 교육공동체의 개념과 논리」, 『리터러시 연구』 11(4),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박주현 외 1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과 교육내용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51(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20./손혜숙, 「대학 교양에서의 서비스러닝 교과목 설계 방안 연구:〈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1,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0./윤지원 외 2인, 「대학생의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학술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21./이희용, 「대학 교양과목을 통한 미디어에 대한 수강생들의 인식-미디어 리터러시와 창의적 소통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5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이채영, 「대학 교양교과로서의 문화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 D대학교 〈문화콘텐츠 리터러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학연구』14,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조남민, 「비판적 인지와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황치성, 「미디어리터러시가 창의적 사고 및 21세기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교육연구』 제9권 제1호, 한양사이버대학교 종합연구원, 2015.

별되어야 한다는 그의 언급은 아주 중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미디어는 교육의 대상이지 교육의 도구가 아니며 활용 교육으로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Buckingham, 2004) 안정임에 의하면 실제로 2009년, 2015년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의 영향으로 미디어 역량에 대한 관심은 꽤 높아진 추세이며 그 결과 초중등 과정의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활용 교육의 연구물은 꽤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sup>2)</sup> 하지만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미디어 교육의 효과가 대학에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학의 기초 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는 주목을 요한다.

물론 최근 들어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대학 교양영역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주목한 논문 또한 몇 되지 않지만 발표되었다. 이때 대학 교양교육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주목한 최근 논문에 조남민(2018), 박주현(2020), 배윤정(2021), 나소정(2020), 윤지원(2021)의 논문이 있다. 최근에 나온 이 논문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자는 그 중에서도 조남민과 나소정의 연구에 주목했다.

조남민의 논문은 비판적 인지와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미디어 리터러

2) 안정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총 227건 중 63건(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연구가 48건(21.1%)으로 다음으로 많았다.(안정임, 2017:30) 일반성인을 포함한 대학생과 관련한 연구가 27건으로 11.5%를 차지했는데 이 경우는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을 포함한 것이므로 대학생을 위한 교육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나마도 미디어 활용 교육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나마도 국어교육학 분야에서 국어 교과 내에서 수행되는 매체 언어 교육의 실태나 교사들의 인식 연구에 치중된 것으로 확인 된다.(안정임, 2017: 24)

시 교육이 대학생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즉 올바른 비판적 인지 능력과 올바른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조남민, 2018:197)을 검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은 미디어를 활용한 리터러시 글쓰기 교육의 일환이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이 도출되는데, 제목과 키워드 중심으로 보았을 때 본 논문은 대학 기초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개발안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활용 교육안임을 확인하게 된다.

교양 수업에 미디어 교육을 접목한 융합 교육 방안(사례 제시)이 대다수인 가운데 교양영역으로서의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나소정의 연구도 주목된다. 전공영역과 변별되는 교양영역이 리터러시공동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나소정의 논문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현재 대학에서 교양학부가 대학 내 여타의 단과대학과 구별되는 리터러시 교육공동체(literacy education community)의 성격을 띠는다는 나소정(2020)의 견해는 일견 타당하다. 인문학의 위기로 온 기초 교양 교육 영역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학제 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융복합학문으로 선회하는 것에서 교양교육이 리터러시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한다는 의견은 본 연구자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기초교양교육 영역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연구가 결과적으로는 문제제기로서만 교양교육의 리터러시교양공동체적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미디어학과 및 언론정보학과 같은 미디어 매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 범주를 세우고 목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다. 예를 들어 설진아와 강진숙(2021)은 방송통신대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범주와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학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기초 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가이다.

핵심은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이 가지는 역할과 그 의미에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 영역은 그 자체로는 학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비자립적 영역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전공영역을 위한 보완적 교육과정으로 간주된 것이 사실이며, 이런 교육 구조에서 교양교육 영역이 독립성을 가지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진행된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아래 현행 대학들의 교육역량강화의 방향이 각 대학의 건학이념 및 교육이념을 반영한 특성화된 교양교육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게 했고 그 결과 전공 교양 영역할 것 없이 융합 교육을 지향하게 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양교육과정은 핵심역량 함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융합 중심의 교양교과목으로 구성되기 시작했다.(윤혜경, 2019) 그러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기초 토대 없이 실행되다보니 그 실효성이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대학 교양의 편성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또한 교양교육의 구분에 따른 학문적 목적만 제시되어 있을 뿐 핵심역량에 따른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박혜정, 2018:68)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융합교육을 위해 활용방안으로만 소환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더 이상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며, 현대 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사회로 나아가는 직전의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은

기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기초교양교육 영역이어야 한다. 대학 기초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개발은 새로운 융합 교육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대학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생핵심역량(K-CESA)을 기반한 기초교양교육 영역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설계 모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대학 기초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재 2022년도 대학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방향 아래 대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로 재편 중이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 대학은 경쟁적으로 미래 대학의 비전과 목표, 전략,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새로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다.(류수진, 2021) 그러나 이러한 재편은 2022년도가 맞이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방향이어야 하므로 그 방향은 이전과 아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럽게 다가온 전면화된 온라인 환경은 학습자들의 신체를 변화시켰고 이는 교수자들의 교수법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단순히 교수법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필수역량요소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때 주요하게 볼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천 가능성 부분이다. 현재 대학에서 교양학부가 대학 내 여타의 단과대학과 구별되는 리터러시 교육공동체(literacy education community)의 성격을 띤다는 나소정(2020)의 견해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의 말처럼 대부분의 교양학부는 대학 교육체계의 기초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양 영역이 대



학 내적으로 구조화된 기초학문 형성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양 영역을 담당하는 교양학부는 사회와 직접 관계를 구성하지 않고 전인적 교양이나 창의성 배양 등 이상적이고 추상화된 의미를 부여받거나 기초이수과목들의 형태로 전공 진입을 위한 도구적 교과과정의 성격을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나소정, 2020:12)

최근 들어 각 학문 영역의 융합을 위해 대안으로 모색된 것에 융복합 과정이 있다. 개별 대학들에서 보이는 융복합 전공 개설 관련 교과목 개발 진행은 학제와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융복합 학문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대학에 정부 재원을 지원하는 <학부 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과 관련된다. 특히 인문학의 위기가 그 내용적인 사항이 아닌 사회적 기능 약화에서 왔다는 판단 아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인문학 기초 영역의 융복합으로의 선회는 교양 영역의 기능이 사회적 기능과 겹목했을 때만 의미를 가지는 현재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각 대학에서 지정한 기초 필수 교양을 살펴보면 현행 리터러시 교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대학의 건학이념 및 교훈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 영역, 기초 외국어와 글쓰기로 대표되는 의사소통 영역,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 문해 교육 영역이 바로 그것이다.<sup>3)</sup> 물론 리터러시 교양은

3) 각 대학의 지정한 기초 필수 교양은 각 대학이 지향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준이 된다. 이때 눈에 띄는 사항은 2016년을 기점으로 많은 대학에서 기초 영역에 디지털 교육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북 경산에 위치한 Y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영역을 공통교양필수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글쓰기, 외국어 영역은 선택 영역으로 선회하였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으로서의 핵심 필수역량에 대한 범주이다. 작금의 시대에 글쓰기, 외국어 영역은 융합교육을 지향하는 리터러시 교육의 기반이 되는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역량의 기초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 교양과 접목, 연계될 수 있고 그에 맞추어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문해력까지 그 교육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면 리터러시 교양은 충분히 연계만으로도 교육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리터러시 영역의 범주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각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의 확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더 이상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활용적 도구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대학생이 가져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에서 리터러시 역량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은 K-CESA(대학생핵심역량)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K-CESA에서는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각종 분야의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정의하며, 총 6가지 역량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https://kcesa.re.kr>)

대학생 핵심역량	평가 요소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역량	자원·정보·기술을 수집, 분석, 활용하는 보편적 인지 능력 평가
종합적 사고력	고등정신능력인 평가적, 대안적, 추론적, 분석 사고력 평가
의사소통 역량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및 토론과 조절 능력 평가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과 다문화 이해 및 수용 능력을 평가
자기 관리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 정서적 자기조절능력 및 직업의식을 평가
대인관계 역량	협력,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각 대학은 K-CESA를 기준으로 각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역량들은 미디어

어 리터러시 능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같은 맥락에 있다. 예를 들어, D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6대 핵심역량과 18대 학위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하위 능력들의 대부분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연계됨을 알 수 있다.

핵심역량	정 의	하위역량	하위역량 정의
소통·협력 역량 Wide Interaction & Cooperation	타인의 상황, 감정, 표현을 이해·공감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역량	공감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성과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합리적 사고와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상대의 의도를 이해(듣기, 읽기)하고,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쓰기, 말하기)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	과제수행 상황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우호적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능력
창의융합역량 Insight & Convergence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기반으로 통합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의 동력인 융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변화수용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 수 있는 능력
		혁신적사고	논리적, 분석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융합적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도전성취역량 Self Leading & Change	개인적 도전 목표 달성뿐 아니라, 위기 및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공동의 비전 설정과 이를 실현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자기주도	명확한 자기인식을 토대로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실행·점검·평가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미래예측	다양한 환경 분석을 통해 위기 및 미래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예측할 수 있는 능력
		변혁적 리더십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지도력
글로벌역량 Divergence & Citizenship	외국어 소통능력을 기반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인과 소통하며, 인류 공동체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	외국어소통	외국어로 상대의 의도를 이해(듣기, 읽기)하고,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쓰기, 말하기)할 수 있는 능력
		다문화이해	우리문화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현상과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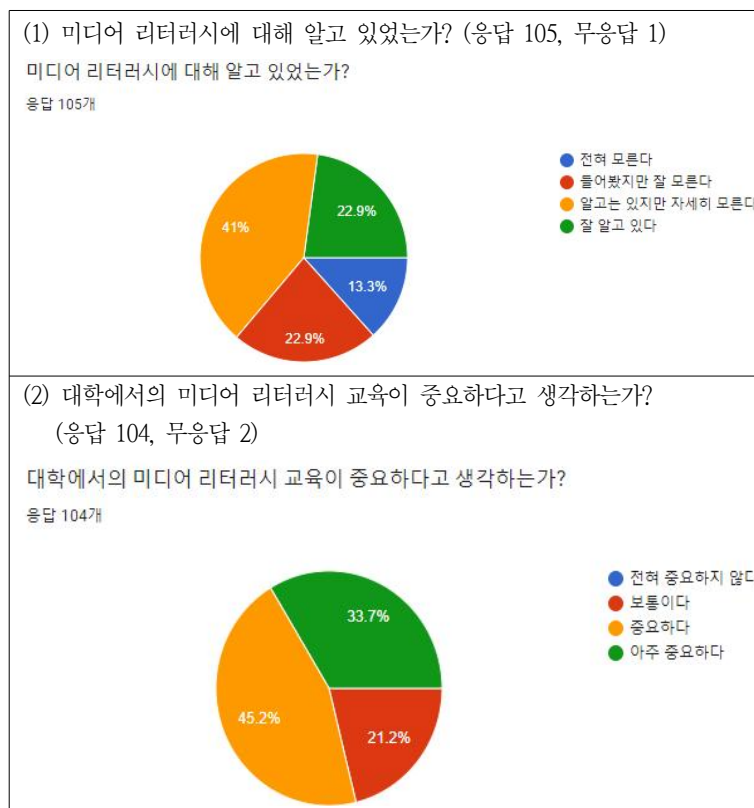
		세계시민 의식	개인적 정체성을 초월하여 지구 공동체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쟁점 및 이슈해결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역량 Online & Challenge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문제능력을 습득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및 디지털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디지털문해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ICT 정보활용	당면한 문제해결 상황에 정보통신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창작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의도한 대로 취사·선택·편집·가공할 수 있는 능력
자비실천역량 Mercy & Compassion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윤리 원칙 및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착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희생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역량	윤리의식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고집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배려	타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려 자비의 마음으로 사회적 취약영역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사회참여	직간접적인 봉사 참여(자기수행)를 통해 타자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대학생핵심역량(K-CESA)에서 제시하는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은 디지털역량에 해당하며, 종합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은 논리 능력, 분석적 비판 능력, 융합적 이해 및 판단 능력을 포함한 창의융합역량에 해당한다. 이는 각 대학이 대학생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대학이 지향하는 인재상을 기르기 위해 구체적인 역량 범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핵심 요소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향하는 범주 및 목표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주목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소통·협력 역량, 창의융합 역량, 디지털 역량’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는 대학핵심역량을 염두에 두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을 함양하는 방향 설계를 위해 대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sup>4)</sup>

〈표 1〉 대학생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조사 항목<1-4>



4) 학습자 대상은 2021학년도 2학기에 5주차 동안 진행된 비교과 프로그램인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에 참여한 학생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총 149명(1학년 50명, 2학년 52명, 3학년 33명, 4학년 14명)이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는 105명이다. (상경사회 계열, 50명, 인문 계열 48명, 이공 계열 39명, 사범 계열 15명)

(3)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응답 105개, 무응답 1)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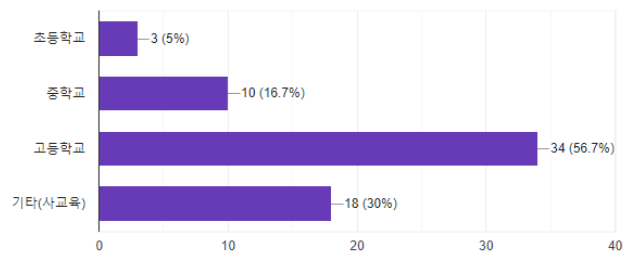
응답 104개



(4) 대학 이전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복수 선택)  
(응답 60, 무응답 46)

대학 이전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복수 선택 가능)

응답 60개



\* 무응답 46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을 의미함

이때 주목할 결과는 1번 항목과 4번 항목이다. 대학 이전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5명 중 60명(초등3명(5%), 중등 10명(16.7%), 고등 34명(56.7%), 기타 사교육 18명(30%))이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5명 중 21명(22.9%)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불명확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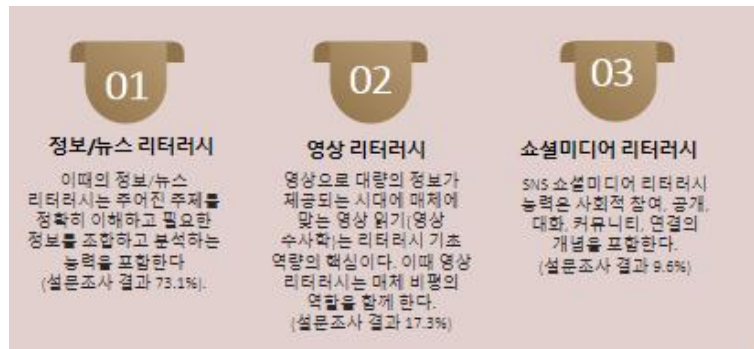
물론 1번 항목에 대한 응답에 활용 교육까지 포함된 결과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법이 디지털 변화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고려 대상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와 교육안을 마련할 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범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5번 항목, 대학에서 꼭 다루어야 할 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와 그림이다.

〈표 2〉 대학생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조사 항목<5>

(5) 대학에서 꼭 다루어야 할 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이 있다면 제시해보자. (응답 34)		
1순위	정보 리터러시(자료 조합 및 정보 판별 능력)	17건
2순위	영상 리터러시	5건
3순위	쇼셜미디어 리터러시	3건
SNS 관련 영역, 쇼셜미디어 리터러시 2		
가짜 뉴스, 정보 선별 능력 4		
과제를 할 때 어떤 정보 리터러시가 필요한지		
네트워크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반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 6		
쇼셜미디어와 다양한 뉴스 매체		
정보 리터러시(자료 수집, 조합, 활용 능력) 5		
엑셀 활용법		
영상 리터러시(유튜브 속 영상) 부분별한 정보나 가짜뉴스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2		
영상 리터러시 2		
영상 매체		
자료 수집, 조사 2		
모르겠다 4		

〈그림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영역 수요조사 결과



위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학생들은 SNS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로 제공되는 정보의 진위(가짜정보 파악)를 파악하는 능력과 정보를 조합하는 능력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많은 정보들이 영상으로 제공되는 시대인 것을 고려해 ‘영상 리터러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것은 디지털 활용 능력 이전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 이 지점을 고려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위의 설문조사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3. 대학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비교과 운영 사례

D대학은 2019학년도 2부터 비교과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개설하고 운영 중이다. 2022학년도 2학기에는 위에서 제시한 2021학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2022학년도 2학기 대비 설문조사까지 두 설문조사를 수합하여 수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교육 목표를 세웠다. 참여자들의 사전 효능감 조사를 할 때 본 수업에



서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기르는 눈과 가짜뉴스를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뉴스리터러시에 가장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2022학년도 2학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항목 중 뉴스리터러시에 좀더 중점을 두고 교육목표를 세웠다.

다음은 이번 2022-2학기에 진행한 비교과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차별 계획이다. 수업은 5주차 동안, 1주에 2시간 동영상 기반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었다.

〈표 3〉 2022-2학기 비교과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주차별 목표

주차	수업 목표	비고
1	- 오리엔테이션 -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	
2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및 정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종류와 특징	
3	진짜뉴스와 가짜뉴스, 뉴스 리터러시	자율 실습 <sup>5)</sup>
4	다매체 읽기의 실제(1) :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SNS, 유튜브 플랫폼)	자율 실습
5	- 다매체 읽기의 실제(2) : 시각화 자료, 인포그래픽	

2022학년도 2학기에 진행한 비교과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는 학습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진행되었다. 2021년도에 진행한 설문조사와 2022-2학기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습자들이 가장 주요하게 생각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는 정보를 선별하는데 있었다.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가짜정보의 진위를

5)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교과 수업으로서 비대면 동영상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학습자들의 부담 감소를 위해 실습은 자율적으로 실시되었다. 추후 대면으로 전환될 때는 실습 위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하고자 한다.

어떻게 파악하는가와 가짜뉴스의 온상이라고 파악되는 소셜미디어 세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교육목표 설정에 대한 점검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과 후 두 번 진행한 효능감 조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표 4〉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사전/사후 효능감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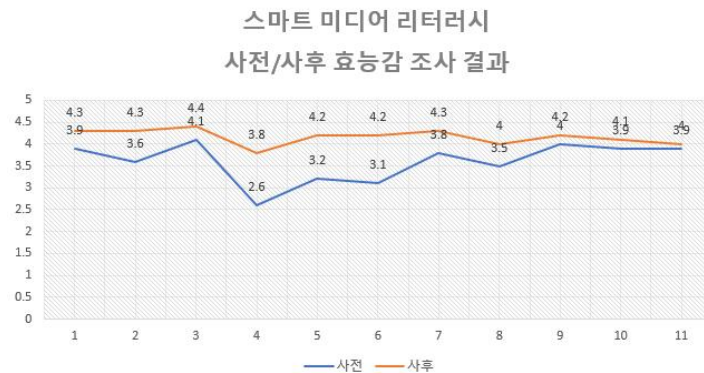
No	문항
1	나는 뉴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2	나는 뉴스에서 무엇이 중요한 이슈인지 잘 파악할 수 있다.
3	나는 뉴스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찾아낼 수 있다.
4	나는 정보의 생산자라고 생각한다.
5	나는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뉴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6	나는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및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중요한 뉴스에 대한 내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다.
7	나는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서 정보를 읽을 수 있다.
8	나는 뉴스 소비자로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 통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
9	뉴스는 나의 일상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뉴스가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활자매체보다 영상으로 보는 정보 읽기가 더 쉽다.

효능감 조사 항목은 이번 학기 수업 목표였던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정보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에 나아가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의 역량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

다음 그래프는 이번 학기(2022-2)에 진행한 효능감 조사 사전 사후 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sup>6)</sup>

6) 2022-2학기 비교과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에 참여한 학생은 87명

〈그림 2〉 2022-2학기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사전/사후 효능감 조사 결과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효능감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특기할 사항은 가장 높은 쪽으로 올라간 항목4와 가장 낮은 쪽으로 올라간 항목11이다. 항목4, ‘나는 정보의 생산자라고 생각한다’는 사전 조사에선 2.6으로 가장 낮은 항목을 보인 부분이였다.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수용하는 수용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던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였음을 사후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항목11, ‘나는 활자매체보다 영상으로 보는 정보 읽기가 더 쉽다’ 항목이 가장 낮은 소폭으로 증가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영상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학생들이 영상 읽기를 가장 어려워한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의 세대가 영상을 보는 것에서 멈추고 읽기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으로 간호대학 10명, 과학기술대학 16명, 불교문화대학 1명, 사범교육대학 5명, 사회대학 14명, 상경대학 24명, 인문대학 16명, 자유전공학부 1명이다.

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은 기초 교양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 설정에 영상으로 제공되는 정보 읽기 능력 함양이 주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4. 결론

주지하다시피 현재 국내대학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언론 정보학과나 신문방송학과 등과 같은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과를 제외한다면 교양교육 영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즉 미디어를 교육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교육과정이 기초교육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글로컬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역량 또는 종합적인 역량 제고를 지향하는 교양교육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를 키우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양필수는 아니더라도 글로컬 시민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양의 주요과목으로 교과 과정에 미디어를 다루는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이희용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이희용, 2021:224-225)

첫째, 미디어 역량의 제고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관심사에 맡겨질 문제가 아니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들이 스스로 키워야 하는 역량이기보다는 교육과 사회적 지원 속에서 함양하는 역량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둘째, 교양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미디어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용양상을 통해 제기될 수 있다.

디지털 세대가 할 수 있는 지금의 학습자들은 활자매체로 이뤄진 정보보다는 거의 대부분 영상 플랫폼을 활용해서 정보를 습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정보를 얻는 출처가 단순해지고 일부 포털에 의존함으로써 확증편향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교육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콘텐츠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소통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다양한 교수법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젠킨스와 리빙스턴이 주장하듯이,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참여적인 사회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환경 안에서 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리터러시를 키우는 데 주목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 말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더 이상 어느 한 영역의 역량이 아니며, 민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역량임을 의미한다. 즉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민주시민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보편적 교양교육이자 윤리적 덕목을 위한 교육인 것이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비판적 인지 능력과 자기표현(assertiveness)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조남민, 2018:197)이면서 대학생들의 참여적 민주시민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필수 기초교양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일반 논문

- 권성호·심현애, 「디지털 소비자의 수행영역 확대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내용 설계 전략」,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2), 2005.
- 김기태, 「한국 미디어교육연구 실태 및 경향 분석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9』,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 김아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김연중·안정임, 「대학생들의 인터넷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한국콘텐츠학회, 2019.
- 나소정, 「대학사회의 리터러시 교육공동체의 개념과 논리」, 『리터러시연구』 11(4),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 류수진, 「대학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지원대학의 대표적인 혁신 프로그램 내용 탐색」, 『인문사회21』,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 박주현·강봉숙,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과 교육내용 개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51(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20.
- 박혜정, 「핵심역량 기반 대학 교양교육과정 설계 모형 연구-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2018.
- 배윤정, 「대학생들의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방안」, 『문화와 융합』 제43권 6호(통권82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 손미란, 「다중매체 언어 읽기와 ‘멀티리터러시-글쓰기’ 교육-매개체로서의 스마트폰 활용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87호, 2019.
- 손미란, 「영화 리터러시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글쓰기 교육-영화비평문 작성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91호, 2020.
- 손미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멀티디바이스 기반 글쓰기 교육 시스템 활용 연구」, 『한민족어문학』 93, 한민족어문학 회, 2021.
- 윤혜경,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사례-D대 교양교육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교양교육연구』 4(1),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19.
- 이희용, 「대학 교양과목을 통한 미디어에 대한 수강생들의 인식-〈미디어 리터러시와 창의적 소통〉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15, 2021.

- 옥현진,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과 디지털 텍스트 읽기 평가에 대한 일고찰」, 『새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 안정임·서윤경·김성미,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연구 특성 및 미디어 역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1(5), 한국방송학회, 2017.
- 윤지원·제남주·박미라, 「대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21.
- 정현선·허경, 「비판적 사고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컴퓨팅 사고의 융합」,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48, 2020.
- 조남민, 「비판적 인지와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 허 경·정현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를 위한 정보의 가치 판단 기준과 판단 절차의 알고리즘화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제40권 4호, 2020.
- 황치성, 「미디어리터러시가 창의적 사고 및 21세기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교육연구』 9권 1호, 한양사이버대학교 종합연구원, 2015.

## 2. 단행본

- 김양은,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박일준·김묘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북스토리, 2019.
- 설진아·강진숙, 『미디어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진민정·김반야·박유신·최숙,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 데이비드 버킹엄, 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연구특별위원회, 『미디어교육 선언』, 학이시습, 2019.
- 데이비드 버킹엄, 기선정 외 옮김, 미디어 교육, 제이앤북, 2004.
- 로베르타 콜린코프, 캐시 허시 파섹, 김선아 옮김, 『최고의 교육』, 예문아카이브, 2018.
- 르네 홉스, 윤지원 옮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학이시습, 2021.
- 제임스 포터, 김대희·임윤경 옮김, 『미디어 리터러시』, 소통, 2016.
- 캐빈 케리, 공지민 옮김, 『대학의 미래』, 지식의 날개, 2016.

Livingstone, S., "Media literacy and the challeng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Journal of The Communication Review 7(1), 2004.

OFCOM(Adults' media use and attitudes report 2011-2016. (<https://www.ofcom.org.uk/research-and-data/media-literacy-research/adults-media-use-and-attitudes>)

UNESCO(<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media-development/media-literacy/>)

(투고일: 2022. 11. 20 심사완료일: 2022. 12. 22 게재확정일: 2022. 12. 23)

손미란

소 속: 동국대학교 W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전임연구원

주 소: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W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전자우편: sfs1004@hanmail.net



[Abstract]

## Media Literacy Education as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 Focusign on Case of Core Competency Extracurricular  
Operation in D University –

Son, Mi-Ran

In the knowledge-based 21th century society, the media literacy education is drastically extended and becomes an essential education area of the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Nevertheless, the media literacy education seems to remain at the level of utilization education in the university field. The current universities' educational competency enhancement i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ized liberal arts education reflecting each university's foundation and education ideologies, under the educational competency enhancement support projects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8, and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both major and liberal arts area consequently pursued the convergent education. The representative area is the 'media literacy education' which is cited as a measure used for the convergent education.

The media literacy competency is no longer a professional area, but a basic competency citizens should acquire in the modern society. Universities, therefore, need to consider how to foster the 'media literacy'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on the verge of entering the society. The basic liberal arts education area responsible for basic education in universities should play a role in fostering it.. By focusing on this point, this paper discussed what a direction which universities should take to design the media literacy education.

Key word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basic education in universities, media literacy, extracurriculum, core competency, competency-based extracurricular program